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유대 사람이 가진 특권

1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2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신실하심

3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4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 하나님의 의로우심

5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6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7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8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 마음열기

한 주간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 말씀읽기

왼쪽 페이지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 관찰하기

할례도, 율법도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미리 선택받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말씀을 맡은 특권'이 있다고 설명합니다(2절). 그러나 택함을 받고도 율법을 아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유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혜택은 무엇인가요? (1-2절)

2.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왜 옳은가요? (3-4절)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불의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왜 옳은가요? (5-8절)

• 뉘아가기

나는 주변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말씀을 맡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먼저 말씀을 맡은 자녀답게 내가 가진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 기도하기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 함께 나눈 기도제목들을 위해

②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의인은 없다

9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10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2 모두 결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 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15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민첩하며 16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17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18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 율법의 역할

19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3 묵상하기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신 민족이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아는 그들이나 모르는 이방 사람이나 입술로, 손과 발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말씀을 많이 알든 모르든, 지위가 높든 낮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두가 다를 것 없이 죄를 지으며 삽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10-11절)고 한 바울의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 의인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4 적용하기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께 혼자서는 감당할 수도 없는 삶의 무게를 모두 내어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명령들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나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 ②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인지를 깨달았나요?
이제 그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저 또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하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차별 없는 은혜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21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22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24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25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26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 믿음의 법으로 받는 구원

27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28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29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30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31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3 묵상하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착하게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힘과 의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직 온 인류를 위한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24-26절). 이 조건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짧게 했든, 지위가 높든 낮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4 적용하기

많은 종교들이 열심히 공로를 쌓고, 선을 베풀고, 정성을 들여야 신을 감동시키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면 됩니다. 혹시 나에게도 '예배 빠지면 지옥 가', '성경 안 읽으면 벌받을 것 같아'와 같은 율법적인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이제 내 생각은 내려놓고 구원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오늘 말씀 앞에 내 모습은 어떠한가요? 혹시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 정죄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요?
- ②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오늘 말씀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할 편견과 고정관념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죽을 수밖에 없는 제게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아브라함

1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3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의 복

4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5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6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7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3 묵상하기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던 유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은 그들의 가치관을 뿌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 사람의 정체성을 흔든다며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 사람들이 떠받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 아닌 성경 속 진리임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give & take'를 강조하는 세상 속에서 값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는 어딘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어떠한 '행위'들을 하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내가 구원을 이루려는 교만임을 나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4 적용하기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만약 예배를 잘 드리고 QT를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업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완성되지 않을뿐더러,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교회 활동, 세례, 많은 봉사, 기도모임 등은 구원받은 증표일 뿐 구원의 조건은 아님을 알고 있나요?
- ② 말씀을 통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행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오직 믿음만으로 저를 의롭다 인정하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겸손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도)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할례의 의미

9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10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11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2 그는 또한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곧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 아브라함의 자손

13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14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15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16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17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3 묵상하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할례를 받은 구별된 민족이어서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을 당시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그가 살던 시대에는 율법조차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닌 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모든 자녀에게도 해당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받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할례를 받은 유대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다면, 오늘날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만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4 적용하기

오늘날에도 구원받기 위해 계속해서 조건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십일조를 해야만” 등 사람들이 말하는 잘못된 기준들을 나는 잘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어 보여도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나의 방법과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내가 버리고 끊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 ② 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사람은 이래야만 해’라는 편견과 기준을 계속 고집하고 있지 않았나요? 바뀌어야 할 나의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자격을 따지지 않고 오직 믿음만으로 저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아브라함의 믿음

18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0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22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 우리 모두를 위한 거룩

23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24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25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3 묵상하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저 감정적으로 “믿습시다”라고 내뱉는 말뿐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들을 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100세가 될 때까지도 자식이 생길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내인 사라 역시 현실적으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기약 없는 시간을 기다린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을 얻었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심을 믿는 것,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분이 나를 담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실 것을 믿는 것, 마침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다.

4 적용하기

누가 봐도 잘될 것 같은 일을 확신하는 것은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당연한 일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믿음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의 방법과 상식, 나의 노력을 넘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을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일상의 은혜들은 물론이고 나를 향한 구원의 약속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나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② 나는 무언가 눈에 보여야만 믿는 ‘프로의심러’는 아닌가요? 이제 ‘프로믿음러’가 되기 위해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제가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둔 믿음 대장, ‘프로믿음러’이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성도의 삶

1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2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3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5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7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8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9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10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1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